

제8회 IAAF 세계청소년육상경기선수권대회
- 우크라이나 도네츠크

참가 보고서

보 고 자 :

- 단 장 : 이 기 응
- 지도자 : 이 상 윤, 박 준 오
- 매니저 : 정 영 훈

일 자 : 2013. 8. 1(목)

□ 대회개요 및 결과

○ 대 회 명 : 제8회 세계청소년육상경기선수권대회

The 8th IAAF World Youth Championships - Donetsk, Ukraine

○ 대회기간 : 2013. 7. 10 ~ 14

○ 대회장소 : 우크라이나 도네츠크시

○ 경기장소 : RSC Olimpiyskiy

○ 참가규모 : 165개국 참가 / 1518명 참가




○ 경기종목 : 42종목 (시범종목인 Medley Relay 포함)

○ 경기대회일정 : 별첨

○ 현지기후 : 7월 평균 기온 27°C

○ 대회결과 및 분석

- 메달집계 (Medal Table)

순 위	국 가	금	은	동	합계
1	 JAMAICA	6	0	2	8
2	 KENYA	4	3	4	11
3	 ETHIOPIA	3	3	2	8
4	 AUSTRALIA	3	0	1	4
5	 UNITED STATES	2	7	8	17
6	 PR OF CHINA	2	6	3	11
7	 RUSSIA	2	5	0	7
8	 GERMANY	2	3	3	8
9	 GREAT BRITAIN & N.I.	2	1	1	4
10	 ROMANIA	2	0	0	2
11	 HUNGARY	1	2	0	3
12	 CUBA	1	1	2	4
12	 JAPAN	1	1	2	4
14	 SWEDEN	1	1	0	2
15	 SOUTH AFRICA	1	0	1	2
16	 CROATIA	1	0	0	1
16	 ICELAND	1	0	0	1
16	 KOREA	1	0	0	1

- 순위집계 (Placing Table)

순위	국 가				4	5	6	7	8	합계
1	 UNITED STATES	2	7	8	2	3	3	2	4	152
2	 GERMANY	2	3	3	2	4	3	6	2	104
3	 PR OF CHINA	2	6	3	2	1	2	1	2	100
4	 KENYA	4	3	4	1	0	1	0	2	87
5	 ETHIOPIA	3	3	2	4	1	0	1	0	83
6	 JAMAICA	6	0	2	2	0	0	2	1	75
7	 JAPAN	1	1	2	3	1	4	3	4	68
8	 RUSSIA	2	5	0	0	1	2	2	2	67
9	 AUSTRALIA	3	0	1	2	4	1	1	0	61
10	 GREAT BRITAIN &N.I.	2	1	1	2	2	2	0	0	53
11	 HUNGARY	1	2	0	1	0	1	2	4	38
12	 ITALY	0	1	1	0	2	3	2	1	35
13	 CUBA	1	1	2	1	0	0	1	0	34
.....										
36	 FRANCE	0	0	0	0	1	0	1	2	8
36	 ICELAND	1	0	0	0	0	0	0	0	8
36	 KOREA	1	0	0	0	0	0	0	0	8

- 대회 전반적 분위기는 청소년 (만 16, 17세 / 한국 고1, 2) 선수 참가로 활기찼으며, 종목별로 30% 이상 개인최고기록(PB)를 기록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음
- 종목별로 보면 단거리의 자메이카와 미국, 장거리의 케냐와 에티오피아가 강세인 것은 성인(Senior) 과 별반 차이가 없었음. 그러나 남자 100m에서 중국의 Youxue Mo 선수가 1등을 하고, 영국이 2 위, 쿠바가 3등을 한 것은 앞으로 단거리에서 자메이카와 미국 외의 국가도 성장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줌. 한편 일본은 세계주니어 100m 랭킹에서 1, 2, 4, 8위에 랭크된 선수들이 있으며 이는 동 양인도 단거리에서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앞으로 성인 무대에서 귀추가 주목됨.
- 아시아권은 종합순위에서 중국이 3위 (선수 40명, 8위 이내 20명, 금 2, 은 6, 동 3), 일본이 7위 (선수 40명, 8위이내 19명, 금 1, 은 1, 동 2)를 달성하며 양국 공히 전 종목에서 고른 성적을 보이 고 있으며, 중국은 필드 종목이 특히 강세로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보임. (한국은 금 1 개로 메달순위는 16위이나 종합순위는 36위임)

- 홍콩과 베트남은 비록 단거리에서 입상은 하지 못하였으나 발전 가능성을 보여줌. 베트남의 여자 400m에서 Nguyen 선수는 53.80으로 4위를 기록.
- 시범종목으로 진행된 Medley Relay는 100m-200m-300m-400m를 이어서 달리는 경기로 매번 순위가 바뀌며 박진감이 있었으며 상당한 관심과 호응을 얻음. 특이한 점은 일본이 남녀 모두 3위에 입상하여 강세를 보임.
- 세계청소년기록 갱신 3건

성명	국가	성별	종목	신기록
Meresa KAHSAY	ETH	남	2000m 장애물달리기	5:19.99
Yanique THOMSON	JAM	여	100mH	12.94
Jamaica		남	Medley Relay	공인 중

- 대회신기록 15개 (남자 5개, 여자 10개)

성명	국가	성별	종목	기록
Robert KiptooBIWOTT	Kenya	남	1500m	3:36.77
Meresa KAHSAY	Ethiopia		2000m 장애물달리기	5:19.99
Jaheel HYDE	Jamaica		110mH (91.4cm)	13.13
Lázaro MARTÍNEZ	Cuba		세단뛰기	16.63
Jamaica			Medley Relay	공인 중
Iréne EKELUND	Sweden	여	200m	22.92
Aníta HINRIKSDÓTTIR	Iceland		800m	2:01.13
Yanique THOMPSON	Jamaica		100mH (76.2cm)	12.94
Emel DERELI	Turkey		포환던지기 (3kg)	20.14
Emel DERELI	Turkey		포환던지기 (3kg)	19.18 *
Yuchen XIE	PR of China		원반던지기	56.34
Réka GYURÁTZ	Hungary		해머던지기 (3kg)	73.20
Réka GYURÁTZ	Hungary		해머던지기 (3kg)	71.72 *
Mackenzie LITTLE	Australia		창던지기 (500g)	61.47
Fabienne SCHÖNIG	Germany		창던지기 (500g)	52.16 *

(*)은 자격예선에서 달성된 기록 / 나머지는 결승에서 달성된 기록임

□ 한국 선수단 파견개요 및 결과

○ 기 간 : 2012. 7. 7 ~ 16

항공일정

1) 출 국 :

- TK0091편 7월 7일 23:50 인천 출발 - 8일 05:45 이스탄불 도착 (경유)

- TK0451편 7월 8일 07:25 이스탄불 출발 - 09:20 도네츠크 도착

2) 귀 국 :

- TK5452편 7월 15일 10:30 도네츠크 출발 - 12:35 이스탄불 도착 (경유)

- TK0451편 7월 16일 00:45 이스탄불 출발 - 16:55 인천 도착

○ 숙 소 : *Ramada Donetsk*

Shevchenko Boulevard, 20, 83015 Donetsk, Ukraine

Tel: + 380 62 381 7979 / <http://ramadadonetsk.com.ua>

○ 일 정

7월 8일 (월)	09:20 Donetsk 공항 도착 및 숙소 이동	
	11:00 ~ 14:00 AD 등록절차 (단장, 매니저) - 유니폼 검사 (Uniform Check) - 선수동의서 제출 - LOC 체제비 인보이스 확인 - 항공료(쿼터) 상환 - IAAF 재무제표 (Financial Statement) - 선수여권 사본 제출 - 최종 참가확정 (Final Confirmation)	
7월 9일 (화)	21:00 선수단 전체 미팅 - 대회 숙지사항 전달 - 선수표 및 AD 카드 배부	
	14:30 - 16:00	경기장 답사 (전원 참석)
7월 10일 (수) ~ 7월 14 (일) 경기대회기간	15:00 - 16:00	기술대표 미팅
	10일 16:00	개회식 (주경기장)
	세계청소년육상경기선수권대회	
	14일 18:00	폐회식 (주경기장)
7월 15일(월)	20:30	만찬 (Shcherbakov Park)
	출 국 (16일 16:55 인천 공항 도착)	

○ 파견명단 및 결과 : 15명 (임원 4, 남자선수 6, 여자선수 5)

【임원 (4명)】

순	구분	성명	소속
1	단 장	이기웅	대한육련 부회장
2	지도자 (단거리, 투척)	이상윤	부산체고
3	지도자 (단거리, 도약)	박준오	충남고
4	매니저	정영훈	대한육련 대리

【남자선수 (6명)】

순	종 목	이름	소속	기준기록	PB	경기결과	비 고
1	100m	이창수	충북체고	11.15	10.77	DNS	예선탈락 (족저근막염)
2	100m	이정태	충남고	11.15	10.78	10.79	1조 6위 준결탈락
	200m			22.75	21.61	22.15	5조 3위 예선탈락
3	1500m	이하늘	여천고	4:01.00	3:56.93	4:05.94	C조 11위 예선탈락
4	장대높이뛰기	박태원	부산체고	4.55	4.90	NM	예선탈락
5	높이뛰기	우상혁	충남고	2.03	2.18	2.20(PB)	1위
6	창던지기	방류현	서울체고	63.00 (700g)	64.02	58.20 (700g)	A조 16위 예선탈락

【여자선수 (5명)】

순	종 목	이름	소속	기준기록	PB	경기결과	비 고
1	창던지기	송한솔	대전체고	46.00 (500g)	49.65	46.16	조 14위 예선탈락
2	원반던지기	김미연	전남체고	42.00 (1kg)	44.68	41.8	조 10위 예선탈락
3	포환던지기	정유선	충북체고	13.50 (5kg)	16.16	14.49	A조 15위 예선탈락
4		이소이	서울체고		15.00	13.17	B조 24위 예선탈락
5	해머던지기	권영혜	부산체고	52.00 (3kg)	56.45	56.61 (3kg PB)	A조 14위 예선탈락

□ 총 평

○ 선수단 파견 및 운영

- 잘된 점

● 항공일정 (대회파견일 적절 / 현지도착 일, 시간 기준)

항공일정

1) 출 국 :

- TK0091편 7월 7일 23:50 인천 출발 - 8일 05:45 이스탄불 도착 (경유)
- TK0451편 7월 8일 07:25 이스탄불 출발 - 09:20 도네츠크 도착

2) 귀 국 :

- TK5452편 7월 15일 10:30 도네츠크 출발 - 12:35 이스탄불 도착 (경유)
- TK0451편 7월 16일 00:45 이스탄불 출발 - 16:55 인천 도착

올해 대회는 러시아 카잔에서 열리는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와 경기일정이 겹쳐 러시아를 경유하는 항공기편 확보가 어려웠고, 따라서 본 선수단은 터키항공을 이용하게 됨. 터키항공에서 장대수송 등과 관련하여 담당자가 협조적이어서 비교적 수월한 이동 여정이 될 수 있었으며, 귀국하는 항공의 긴 lay-over 시간은 무비자 국가인 터키의 이스탄불 시내를 잠시 구경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함.

비록 심신이 지치는 긴 항공시간이었지만, 현지 도착일과 시간은 국제대회 파견 시 최소한의 요구조건을 충족하였음. 본 연맹의 국제대회 파견 매뉴얼에는 유럽지역 개최 대회의 경우 대회 4일전 도착 기준(예)으로 명시되어 있고, 일본 선수단은 대회 3일 전에는 현지에 도착하는 모습을 세계주니어선수권, 세계 청소년선수권 등을 거치며 종종 보았으나, 이는 보통 경기대회 Day 1 이틀 전부터를 Official Period로 정해 쿼터 내 선수 및 임원에게 숙박 및 할인을 제공하는 IAAF의 정책을 고려했을 시 추가적인 연맹 자체부담액이 있는 것임. 일본처럼 대회 3일 전에는 현지 도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으나,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최소한 Day 1 이틀 전 이른 오전에는 반드시 현지 공항에 도착해야 함을 본 대회를 통해서 재확인함. 7월 8일 오전에 우크라이나 도네츠크 공항에 도착하였기 때문에 복잡한 AD 등록 절차를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었고, 9일에는 공식적인 행사 (경기장 답사 등)에 선수단을 리드하여 참가할 수 있었음.

● 참가 매뉴얼

연맹 차원에서 약식 참가 매뉴얼을 준비하여 선수 및 임원들에게 숙지사항을 전달하였음. 이를 통해 국내 경기와는 상이한 국제대회의 소집시간을 사전에 숙지시켜 선수 본인이 몸을 언제, 어떻게 풀 것인지 고민하게 하고, 매일 저녁 미팅을 통해 경기 스타트 시간, 익일 훈련장소 파악을 스스로 하고 임원과 재확인하도록 유도하면서 선수 자신이 주도적으로 경기에 임하는 태도를 독려하고자 하였음. 그럼에도 한국 선수들은 자기관리가 뛰어난 소수의 선수들을 제외하고는 수동적이고 지도자/임원 의존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동기 부여와 패기가 결여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쉬운 점이었음. 아래는 본 대회에서 활용한 약식 매뉴얼의 일

부.

경기일정 (안) : 별첨

일반적인 IAAF 국제대회 소집(Call) 시간

종 목	소집실(Call Room) 입실	경기장소 도착
트랙 종목	40분전	10분전
높이뛰기	70분전	40분전
장대높이뛰기	90분전	60분전
기타 필드 종목	60분전	30분전
릴레이	40분전	10분전

경기
관련

선수의 책무

대회 전날 숙소에 공지되는 최종 경기시간(Start-List) 및 소집시간을 재차 확인 후 자신의 이동시간(숙소-준비운동장)을 팀 매니저 및 임원과 확인한다.

최종 스타트리스트 및 경기결과 확인

1. 호텔 숙소 게시판
2. IAAF 웹사이트 실시간 공지 : <http://www.iaaf.org/competitions/iaaf-world-youth-championships>

호텔숙소(Ramada Hotel) 식사시간

	7-9 July	10-13 July	14 July
Breakfast	07:30 - 10:00	06:30 - 10:00	07:30 - 10:00
Lunch	12:30 - 14:30	12:00 - 15:00	11:30 - 14:30
Dinner	19:30 - 22:00	19:30 - 22:30	At Final Banquet

7.9
미팅

선수권대회 기간 동안 **장대높이뛰기 종목을 제외하고** 훈련은 오직 Kirovets 훈련장에서 실시함. Kirovets 훈련장 운영시간 : **09:30-13:30 / 17:30-20:00 (14일만 제외)**

※ 장대높이뛰기 훈련은 준비운동장(Warm-up Stadium)에서만 실시

7월 9일 훈련장 (Kirovets) 이동시간

오전 출발 08:00, 09:30 / 복귀 11:00, 12:00
오후 출발 16:30, 18:00 / 복귀 19:00, 20:30

7월 9일 경기장 답사 및 훈련 (용구 사용 훈련은 없음)

RSC Olimpiyskiy 주경기장 / 14:30 - 16:00
스타터 14:45 - 15:45

전원 참석 : 점심식사 후 14:00 숙소 출발 (조직위 버스 준비)

● 경기장 답사

AD 등록 절차 등을 조기에 마무리 할 수 있었기에 여유를 갖고 9일에 진행된 대회 관련 공식행사에 참여할 수 있었음. 경기장 답사 일정은 선수들에게는 공식적으로 경기에 참가하기 전 주경기장에서 몸을 풀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며, 팀 임원에게는 경기장 동선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팀 임원 1~2명이 대표로 참가하여 IAAF 경기본부장 (Paul Hardy)의 인솔 하에 경기장 동선을 파악하는 일이 중요한 이

유는 IAAF 세계시리즈대회가 유치되는 장소가 매년 다르며, 경기장마다 구조와 편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파악하여 선수 및 임원들에게 숙지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임.

- 새로운 점

● IAAF의 환경보호정책

본 대회부터 IAAF에서는 환경보호정책의 일환으로 종목별 기록지 및 일일프로그램 배부를 획기적으로 축소함. 이는 IAAF에서 지난 수년간 준비해온 작업으로 공식 스타트리스트 및 경기결과를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등재하는 전산화 작업이 완료됨에 따라 VIP 라운지에서만 프로그램 및 기록지를 인쇄물로 배부하는 형식으로 운영하게 된 것임. 즉 팀 임원 및 선수들은 IAAF 홈페이지나 선수촌(호텔) 게시판에 공지된 내용으로 모든 일정 및 공지사항을 확인하게 함으로써 불필요하게 소모되는 인쇄물을 획기적으로 경감시킨 것임. 경기대회 종료 후 팀별로 전체 기록지를 한 부씩만 팀별로 배부함.

● 감독자 회의 없음

역시 본 대회부터 새롭게 시범 시행하는 것으로 감독자 회의를 없애고, 기술대표들이 경기장 답사 기간 동안 한 장소에 모여 있어 팀별로 건의하고 문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실제로 팀에게 중요한 도약 종목의 바 높이 등에 대한 결정은 이 기술대표들 간의 회의를 통해 공식 높이와 바를 높이는 간격이 최종 결정되어 홈페이지 및 숙소 게시판에 공지하여 팀에게 전달되도록 함.

- 개선할 점

● 국내대회 소집절차

가. 국제대회 소집시간 (2013 - 제8회 세계청소년 소집시간)

종 목	소집실(Call Room) 입실	경기장소 도착
트랙 종목	40분전	10분전
높이뛰기	70분전	40분전
장대높이뛰기	90분전	60분전
기타 필드 종목	60분전	30분전
릴레이	40분전	10분전

나. 국내대회 소집시간 (2013 전국육상경기선수권 소집시간)

종 목	1차 소집	2차 소집
트랙 종목	30분전	15분전
장대높이뛰기	70분전	60분전
기타 필드 종목	40분전	30분전

상기와 같이 IAAF에서 주관하는 대회와 국내 대회에서 선수가 모든 준비운동을 마치고 소집

실에 입실하는 시간에 차이가 있음. (국제는 소집실 입실, 국내는 2차 소집이 실제로 입실하는 시간임) 트랙은 약 25분, 장대높이뛰기 종목은 30분, 기타 필드 종목은 30분 등의 시간차가 나는데, 이는 국제대회 소집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선수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 예를 들어, 국내에서 경기시간 15분 전까지 보조경기장에서 몸을 풀고 들어가는 것과 국제대회에서 40분 전에 모든 워업을 마치고 소집실에 들어가는 것은 선수가 국내대회를 뛰는 동안 숙달시켜 왔던 자신의 루틴을 변경해야 함을 의미하고, 이는 실제로 선수의 컨디션 조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향후 국제대회에 파견하는 우리나라 선수단을 위하여 본 연맹에서 이를 분석하고 국제대회 출전에 유리한 조건을 국내에서 만들어 주는 것이 고려해 볼 만한 사항임.

● 선수단 선발 및 부상여부 파악 / Peaking 권고

본 연맹(또는 기술위원회)에서 선수 선발 시 부상 이력과 여부를 파악하여 고려해야 하며, 선발된 선수에게는 출전하는 대회에 맞추어 훈련할 것을 독려하고 동기 부여할 수 있는 방안 구상이 필요

● 기념품 제작 필요 (핀, 코인)

외국은 핀과 코인을 교류하는 문화가 보편화되어 있음. 또한, 스포츠는 한편으로 문화적 교류이기 때문에 화려하고 값진 물품보다 그 국가나 대표팀, 연맹을 상징하는 핀과 코인을 교류하는 것에 큰 의미를 둬. 군대에서도 장군이 병사에게 코인을 수여하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는 것이며, 스포츠계에서는 주로 국가연맹이나 국가올림픽위원회를 상징하는 핀을 주고 받으면서 추억과 유산을 남기고 네트워크 형성을 하게 됨. 본 연맹 핀 제작 필요.

● 팀 매니저(주무)의 구성과 역할

숙소와 주경기장, 보조경기장의 동선 및 버스 이동시간, 주경기장 내부 동선 파악 등은 팀매니저가 현장에서 미리 파악하여 팀 인원 및 선수가 경기출전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행정적 지원인데, 실제로 매니저가 선수단과 함께 항공으로 이동하고 현장에 도착하게 되면, 이러한 소요를 조기에 파악하기 버거운 것이 현실임. 본 대회는 선수단 규모가 크지 않고, 또한 단장이 영어능력을 구비하였고 선수단에 대한 관심과 현장 정보 파악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보완이 되었음. 그러나 이상적인 구조는 1명의 팀 주무가 현장에 선수단 보다 하루 이틀 먼저 도착하여 동선 파악 및 AD 등록, 숙소 배정을 사전에 마무리 해 놓고, 다른 한 명의 주무가 선수단을 동행하여 현지에 도착하는 것임.

현장에서 이들의 주 역할은 주경기장에서 선수들의 경기를 관람하고 촬영하고 기록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경기장과 숙소에 각각 위치하여 선수들의 이동과 소집의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하는 것임. 선수의 컨디션 관리와 경기 출전은 선수 자신과 지도자의 몫임.

대표팀은 국제대회에 수차례 참가한 지도자들이 많아서 경기출전과 관련한 문제가 생길 여지가

크지 않으나, 국제대회를 처음 나가보는 지도자와 선수가 대부분인 세계주니어, 청소년 대회에서 팀 매니저의 구성과 역할은 더욱 강조되고 지원되어야 함.

● 대회 동영상 및 사진자료 : <http://cafe.daum.net/throws>

(이상운 지도자가 운영하는 카페)

○ 분석 및 평가

● 단 장

- 이기웅 (대한육련 부회장)

가. 한국선수단결과

-선수11명 (남6명, 여5명) 참가하여

입상은 금메달 1개 (높이 우상혁 2.20MPB - 종전2.18M) 수확

100M(남) 이정태 1차예선 통과하고 준결 탈락 (PB10.78 - 10.79)

" 이창수 1차예선 부상 기권 (PB 10.77)

200M(남) 이정태 1차예선 탈락 (PB 21.61 - 22.15)

월반(여) 김미연 예선탈락 (PB 44.68 - 41.80)

창던지기(여) 송한솔 예선탈락 (PB 49.65(600g) - 46.16(500g))

포환(여) 정유선 예선탈락 (PB 16.16 - 14.49)

" 이소이 예선탈락 (PB 15.00 - 13.17)

장대(남) 박태원 1차시기 (4.50M) 3차 모두 실패 탈락 (PB 4.90M)

창(남) 방류현 예선탈락 (PB 64.02 - 58.20)

해머(여) 권영혜 예선탈락 (개인 PB 56.61M수립 - 종전 56.45)

1500M(남) 이하늘 예선탈락 (PB 3:56.93 - 4:05.94)

나. 평가

세계대회의 한국선수단 참가결과 성적도 중요하지만 각 분야별로 과정을 살펴보고 앞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보면

▶ 선 수

- 세계대회에 참가선수 선발이 대회 개최 임박하여 확정 통보(2주전)되어 충분한 연습이 안 되어 대회에 참가하여 기록 저조

- 일부 선수는 한국에서부터 부상이 있었음에도 참가하여 경기 당일 컨디션을 보고 결정하는 등 선수 부상관리 필요
- 장비규격이 바뀐 종목의 경우 사전훈련 부족 (국내 고등부경기가 청소년대회가 선발대회만 있어 기존 장비로 다수 대회참가로 훈련 부족)
- 세계대회 참가하면서 국제연맹 홈페이지에서 경쟁 선수들의 기록과 자신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었으나 아무도 관심이 없었고 확인한 선수도 없었음.
- 전반적으로 세계수준에 대한 인식이 없고 패배의식이 있어 대회 참가에 대한 적극성 부족 (EX ; 예선 탈락 후 경쟁선수의 결선도 참관안함. 또한 세계대회보다는 국내1등과 전국대회에만 관심 있음)

▶ 대회감독(2명)

- 선수 선발 후 대회감독이 우수선수 감독 위주로 소수로 선발되다보니 타 선수들에 대한 정보수집 및 장악력 부족
 - 사전에 소속 코치와 협의 및 선수 장단점 파악 필요
 - 대회에 대한 사전정보 사전입수 필요
- 세계수준과 격차로 국내의 코치들도 별로 성적에 연연치않음 (전국체전 등이 중요함)
- 다행히 부산체고 이상윤 감독은 사진과 비디오 촬영의 전문가여서 기록을 남기는데는 도움이 되었음

▶ 연맹차원

- 국제대회시 선수 및 감독 등의 엔트리를 최소한 1달전 선정하여 충분한 대회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조치 필요
- 사전에 충분한 대회정보 및 기록 등을 참가선수단에게 제공 및 대회 참가의 의미와 중요성 강조 필요.
- 현지 의사소통이 가능한 임원 및 감독을 선정파견 필요.

● 지도자

- 이상윤 (부산체고)

가. 대회준비

국내 여자고등학교 선수들은 4Kg의 해머로 대회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번 세계청소년육상선수권대회부터 여자 해머던지기 무게가 3Kg으로 변경되어 출국 전 3Kg 해머로 기술훈련을 하여 무게적응을 하였으며 기술훈련에서도 평소보다 빠른 스피드를 이용한 던지기를 하였다.

권영혜 선수는 세계대회를 처음 출전하여 국내와 다른 식단을 대비하여 출국 전 한국음식을 준비하였으며 IAAF 홈페이지를 통해 경기날짜와 경기시간 그리고 대회에 제공되는 투척용기구의 종류를 미리 파악하여 정보를 제공하였다.

나. 경기출전

우크라이나 도네츠크에 도착하여 첫날은 휴식을 하였으며 다음날부터 대회 전날까지 경기시간에 맞추어 훈련장에서 기구던지기를 하였고 경기장 상태와 Circle을 점검하였으며 매일 선수의 건강상태를 체크하였고 대회 전날에는 START LIST를 파악하여 경기당일의 던지는 순서와 유의사항을 지시하였다.

자격예선A조에 편성된 권영혜 선수는 연습시기에서 자신보다 체격과 기량이 뛰어난 외국선수들을 보면서 자신감이 위축되었으나 본인의 기록을 경신하는데 노력하여 첫 번째 시기에서 개인최고기록을 경신하였다.

다. 평 가

세계청소년육상경기선수권대회 투척경기에 남자1명, 여자5명의 선수가 참가하여 남자 창던지기(방 류현 서울체고), 여자 포환던지기(이 소이 서울체고), (정 유선 충북체고), 여자 원반던지기(김 미연 전남체고), 여자 창던지기(송 한솔 대전체고), 여자 해머던지기(권 영혜 부산체고)에 참가하였으며, 여자 해머던지기에서 권 영혜 선수가 56m61을 던져 자신의 최고기록을 경신하였고, 나머지 선수들은 자신의 기록에 크게 못 미치는 기록을 수립하였다.

경기에 참가한 선수들은 최선을 다하여 경기에 임하였다고 본다. 그러나 외국 선수들과의 기록 격차를 좁히는 것이 쉽지 않았고 외국 선수들에 비해 우리 선수들의 체격과 기술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중국 여자투척선수의 경우 상위권에 진입한 것을 볼 때 우리나라선수들의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라. 기타 애로사항 / 개선할 점 / 건의사항

상위권 국가의 경우 이번 대회를 위한 사전 준비가 잘 되어 있었다. 같은 숙소를 이용한 일본 팀만 봐도 종목별 코치(전담지도자)가 따라 붙어 자국에서의 사전훈련과 선수 특성에 맞는 종목별훈련을 실시하였다. 우리나라도 출전하는 선수의 소속지도자가 참가하여 지도하는 기회를 마련했으면 한다.

또한 경기장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에 맞추어 선수와 관전하는 사람 모두 지루하지 않고 흥겹게

경기진행이 이루어진 것 같다. 우리나라도 2011세계육상경기대회의 경험을 살려 국내경기에도 도입을 했으면 하는 개인적 바람이다.

이번 대회를 통하여 우리나라는 젊은 유망주 발굴이 절실하게 필요하며 체계적 훈련을 통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지속적인 지원과 국내훈련으로는 부족한 선수들을 위해 해외전지훈련 및 외국지도자초빙, 국내지도자들을 해외연수를 통하여 우리나라 육상도 상위권진입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 박준오 (충남고)

이정태는 시합준비를 스타트훈련과 스피드 가속훈련을 주로 했습니다. 가속주 훈련과 dash 훈련 및 웨이트를 중량 훈련이 아닌 speed로 훈련하였습니다. KBS배 시합을 1차 목표로 운동하고 있었으나 세계청소년대회 출전한다는 공문을 받고 1차 목표를 세계청소년에 맞췄습니다. 급격하게 목표를 바꾸어 완전한 컨디션은 아니었습니다. 몸 관리는 코치인 제가 지시하는데로 시키는것이 아닌 선수와 대화를 통하여 스케줄 관리 및 컨디션 조절을 해왔습니다. 세계청소년 100M 준결승을 뒀 후 10초79를 기록 하였는데 만족스런 기록이었습니다. 하지만 200M 는 기록이 저조하여 불만족스런 결과였습니다. 시합을 마친 후 아직도 많은 것이 부족하고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가망성을 발견하였습니다.

우상혁의 시합준비는 높이뛰기 전조주 연습 및 단조주 연습 3보 가위뛰기 3보 배면뛰기 연습 전조주 기술훈련과 점프 보강훈련 및 웨이트 훈련.허들 고관절훈련을 주로 하였습니다. 상혁이는 올해 초부터 세계청소년대회를 1차 목표로 잡고 훈련해왔으며 전국선수권대회시합을 뒀 후 발목이 조금 좋지 않아 그 다음 국내시합은 세계청소년대회를 위해 높이를 높이지 않고 2m7~10정도로 하여 높이뛰기 실전에 대한 적응을 해왔습니다. 선수 또한 철저한 자기관리로 컨디션을 최상으로 끌어올리기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번 시합에서 우승은 하였지만 아직도 부족한 것을 발견하였고 제 생각보다 더 뛰어나다고 생각한 것도 있습니다. 이번 시합이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더 열심히 지도하고 관리하겠습니다. 이런 좋은 기회를 주신 대한육상경기연맹 모든 관계자분들에게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 선 수

- 우상혁 (남자 높이뛰기 / 충남고)

가. 대회준비

이번 대회를 준비하는 동안 컨디션도 안 좋고 몸도 안 좋고 운동도 힘들었지만 할 수 있다는 생각과 준비를 철저히 해서 이번 대회에서 좋은 성적이 있었던 것 같다.

나. 경기출전

처음 뮌헨 세계대회 시합장 들어가는데 긴장도 많이 되고 나의 또래 친구들을 보니까 더 긴장이 됐다. 첫째날 시합 할 때 나는 긴장한 마음으로 시합에 임했다. 한국과 다르게 여기선 예선을 하고 결승을 한다. 아직 우크라이나에 온지 몇일 안 되서 적응이 안됐지만 다 마음먹기에 달린거라 생각해서 마음을 단단히 먹고 시합에 임했다. 시합도중 몸을 풀고 경쟁자들을 보니까 다시 자신감이 더 생겼다. 키, 점프, 이런 거에선 뒤쳐졌지만 기술 쪽으로는 내가 훨씬 우월하다는 걸 느꼈다. 자신감을 가지고 예선전을 뛰었는데 모두 1차시기에 넘어서 예선 1등으로 통과했다. 기분이 너무 좋았다. 결승전을 치를 수 있다는 생각에 너무 기분이 좋았다. 나는 이제 결승전만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

결승전하는 당일 난 또 생각하고 또 생각을 했다. 나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몸을 풀고 시합장에 들어갔는데 예선전만큼 긴장되는건 똑같았지만 자신감 하나만큼은 최고였던 것 같다. 내생에 첫 세계청소년이라는대회 처음이자 마지막인 시합이라는 생각에 오늘 한번 일 내겠다는 생각에 정말 죽도록 된 거 같다. 결승전인 만큼 경쟁자들도 많았지만 난 모든 바를 1차시기에 넘고 일등을 했다. 진짜 너무 기분이 좋았고 온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다. 세계 일등을 했다는 것이 믿겨지지 않았다. 진짜 말로 표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기분이 좋았다.

다. 평 가

이 시합을 마치고 나서 너무 행복했던 거 같다. 내가 일등을 했다는 것이 믿겨지지 않았고 기분이 진짜 너무 좋았다. 노력한 만큼 결과가 따라온다는 말은 진짜 맞는 말이라는 걸 알았다. 이번 시합계기로 더 열심히 노력하고 다음에도 세계대회를 나갈 수 있다면 더 노력해서 이번시합만큼 좋은 결과 있게 더 열심히 노력해야겠다. 이번 시합이 나에게 가능성을 알려주었고 열심히 노력하면 좋은 결과가 있다는걸 알려주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더 큰 대회를 나가는 걸 목표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

- 권영혜 (해머던지기 / 부산체고)

가. 대회준비

원래 여자 청소년대회 해머던지기 무게는 4kg인데 올해부터 3Kg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3Kg으로 올해 처음 잡고 보았고 연습도 많이 하지 못하였다. 국내시합은 4Kg였기 때문에 국내시합 끝나면 3Kg으로 던지다가 다시 시합이 있으면 4Kg으로 던져서 그런지 잘 적응이 되질 않았다. 그렇지만 선생님께서 세계육상경기연맹 사이트에 들어가서 해머크기랑 해머종류를 미리 알려주셔서 시합장에서 뭘 잡을지 고민 없이 잘 한 것 같다.

나. 경기출전

처음 Korea유니폼을 입고 한국대표로 나가본 시합이었다. 그래서 설레기도 하고 긴장도 많이 됐다. Circle을 시합전날 가서 점검하고 턴을 돌아보았는데 무척 좋았다. 그래서 시합 날 내 개인최고기록을 수립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연습시기를 두 번 주는 줄 알고 기다렸는데 한번 만주고 바로 경기를 시작하였는데 1차 시기에서 56m61을 던졌다. 마음의 준비가 돼 있지 않고 말도 안 통했는데 엄청 답답하였다. 2차시기는 Foul을 했고 3차시기는 2차시기 Foul한 것에 대한 마음이 조금해서 기록이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이번 대회를 계기로 많은 것을 느끼고 보았다.

다. 평 가

국내시합만 뛰다가 세계대회에 출전하니까 많이 낯설었다. 소집하는 방법도 달라서 몸을 푸는데 조금 정신이 없었다. 외국선수들은 다 신장도 크고 체중도 많이 나갈 줄 알았는데 의외로 몸매는 단거리선수처럼 얇았다. 이번 대회를 통해 많은 경험과 나를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것 같다.

- 박태원(장대높이뛰기 / 부산체고)

가. 대회준비

대회를 준비하기 전 몸 컨디션을 끌어올리기위해 훈련량을 나 자신을 위해 줄였고 집중적으로 훈련을 했다. 한국 음식을 들고 가서 먹은 것은 정말 다행이었다고 생각한다.

나. 경기출전

첫 세계대회라는 부담감 때문에 많이 위축이 되었었고 마지막 6보 조주에서 빠르게 들어가지 못해 실패를 한 거 같다. 좋은 경험 한 거 같아서 후회는 없다. 밥이 너무 입에 맞지 않아 시

합 날 고생했다.

다. 평 가

저와 같은 나이 또래 선수들과 시합을 뛰어보니 한국에서 1등을 해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세계 선수들과 달리 우리 선수들이 많이 긴장을 한 거 같다. 저 나름대로 이번 계기로 더 열심히 하고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라. 기타 애로사항 / 개선할 점 / 건의사항

선생님이 3분정도 가셨지만 장대높이뛰기가 어려운 종목이다 보니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없으셨다. 다음 후배들 중 장대높이뛰기 출전 선수가 있다면 코치 쌤이나 컨트롤 해 주실 수 있는 분이 필요할 거 같다. 그리고 선수들에게 라면을 2개씩 줬는데 라면보다 밥 2개를 주셨다면 훨씬 좋았을 거 같다.

- 이소이 (포환던지기 / 서울체고)

가. 대회준비

나는 이 시합을 위해 출국 전 학교에서부터 포환무게를 낮춰서 훈련을 했다. 내 실제 포환무게와 다르기 때문이다. 내 포환무게가 아닌 만큼 감을 잡을 필요가 있어 한국에서 많이 던지고 감을 잡았다. 하지만 한국에서가 문제가 아니었다. 출국을 하고난 뒤 꾸준히 트레이닝을 해줬어야 되는데 기구도 못잡을뿐 더러 운동이 제대로 되지 않아 감을 점점 잃어갔다.

나. 경기출전

시합을 뛰기 위해 몸을 푸는데 그동안 너무 기구를 잡지 않은 것 같아 시합 전에 몇 개 던지고 갔다. 기구 안잡은 것 치곤 몸도 좋았고 기록도 괜찮았다. 이른 시합 경기여서 땀도 많이 흘리고 스트레칭도 많이 해주었다. 그런데 경기장에 들어가기전 이것저것 대기시간이 너무 길어 몸이 많이 굳어졌다. 시합에 들어갔는데 긴장을 한건지 아님..잘모르겠다. 내 몸이 컨트롤이 잘되지 않았다. 다른 선수들도 나랑 똑같은 환경일 텐데 저렇게 자기기록도 세우고..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

나는 원래 다른 선수 기록은 생각을 잘 안하는 편인데 다른 선수들의 기록을 보면서 점점 내가 위축 되었던 것 같다. 갑자기 집중도 안 되고 자세도 안 되고 자세를 말해줄 선생님도 안계셨다. 기록이 2m 깎인채 시합이 종료되었다. 또 느낀 점은 내기록이 나왔어도 결승을 가게 되었을지 모르겠다. 투척종목은 모두 외국 선수들에 비해 기량이 너무 뒤처지는것 같았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될 것 같다.

- 김미연 (여자 원반던지기/ 전남체고)

KBS 시합을 끝나고 몇일 안 되서 세계청소년시합을 바로 간거라 이번 시합에 준비를 못했다. 처음 경기장에 갔을 때 우리나라랑 많이 달라서 색다른 경험도하고 안좋은게 있었다면 외국선수들한테 좀 이상한 냄새가 나서 적응 못 했는데 시간을 지나갈수록 적응을 했다. 시합을 들어가기 전에는 기록도 잘나오고 자세도 좋았는데 1차, 2차 소집 할때 몸이 좀 굳어가지고 경기장에 들어가니깐 세계 첫 시합이고 어떡해 할지 몰라서 내 자신을 마인드 컨트롤도 못했다. 그리고 몸이 좀 풀리게 굳어서 긴장도 많이 하고 몸에 힘도 많이 들어가서 자세도 안됐다. 그리고 다른 나라 외국 선수들 던질 때마다 날 너무 의식해서 그런지 긴장 더 들어갔다. 이번 시합을 통해서 색다른 경험도 하고 나에 부족한 점을 깨닫고 학교 가서는 보강이나 자세연습을 많이 해야겠다.

- 이하늘 (남자 1,500m / 여천고)

내가 세계청소년시합을 갔다와서 엄청나게 많은 것을 느꼈다.

먼저 시합분위기 부터 한국과 많은 비교가 됐다.

한국은 시합을 즐기지도 않고 그냥 서로 경쟁만 하는 그런 딱딱한 분위기이다. 도네츠크에서 시합을 펼 때는 하나의 축제 같은 분위기였다.

시합을 뛰는데도 음악을 틀면서 경기장자체를 하나의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서 시합 뛰는 것 자체가 재미있었다.

- 이정태 (남자 100m / 충남고)

가. 대회준비

세계 청소년대회라고 특별히 준비한 것은 없고

평소대로 몸 관리와 훈련을 해왔다.

나. 경기출전

외국에서 시합을 뛰는 것이 처음이어서 설레고 좋았다

다. 평 가

내 기록을 깨는 것이 목표였는데 0.01초 차이로 못 깨서 아쉬웠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기록을 단축해야겠다.

라. 기타 애로사항/개선할점/건의사항

한국에서도 외국시합 같이 즐거운 분위기로 시합을 하였으면 좋겠다.
앞으로 운동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

- 이창수 (남자 100m / 충북체고)

가. 대회준비 : 대회준비는 따로한 것 없음

나. 경기출전 : 경기를 뛰지 않음

다. 평 가 : 운동선수로서 아주 좋은경험이 되었던것같습니다

라. 기 타 : 앞으로 우리나라 육상도 많이 발전되어야 할거같습니다

- 방류현 (남자 창던지기 / 서울체고)

이번에 청소년을 대표로 해서 시합을 뛰게 되서 너무 좋고 처음으로 세계청소년 시합을 뛰게 되었는데 경기결과는 좋지 못하였지만 이런 경험을 한 것이 나에게 많은 도움이 될것이라고 생각한다. 시합을 하면서 우리나라 시합과 많이 다르다는걸 느꼈고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다시 한번 더 온다면 이번에 시합을 뒀던 것을 참고하며 몸 관리를 잘 해야겠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세계적 시합을 보고 경험하며 나의 경기력 또한 한 걸음 더 성장한 것 같다.

세계 청소년 육상 선수권 대회를 뛰고 느낀 점

2013년도 첫 시합인 춘계 중.고 육상대회에서 1위를 해서 이번 세계 청소년 시합에 선발이 되었다. 일단은 처음 나가 본 세계 시합인데 훈련용 운동장과 보조경기장 그리고 시합이 열리는 본 경기장으로 나뉘는데 훈련용 운동장에 가서 같은 또래 선수들이 기구를 던지는 것도 보고 같이 던져봤는데 일단은 국내에서는 600g을 던지다가 500g으로 시합을 뛰어야하는데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에 걱정이 많았고, 기술훈련을 할 때 몸에 힘을 빼고 연결을 해서 던지면 괜찮고 창도 잡아당기지 않았고 그대로 보내주기도 해서 걱정은 없고 이제 컨디션관리랑 이미지 트레이닝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훈련을 끝내고 그 다음날 본 경기장에 가서 각 종목별로 몸도 맞춰보고 운동장도 많이 둘러봤는데 잘해야겠다는 생각과 마음, 후회와 미련이 남지 않도록 열심히 해봐야겠다고 생각을 했다. 그리고 내 시합 날 나는 A조 5시 경기였는데 국내시합과는 다르게 1차 소집이 1시간 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3시 30분에 차를 타고 운동장에 나가서 몸을 풀고 창을 조금 던져봐야 했는데 이미 다른 선수들이 다 창을 가져가서 창을 던져보지 못하고 스트레칭과 자세 생각을 하다가 선수들만 1차 소집실에 모이고 선생님들과 친구들은 먼저 본 경기장으로 가고 인원파악과 대기를 조금하다가 선수들끼리 차타고 본 시합장으로 이동을 해서 2차 소집실에 모여서 스파이크 검사와 인원파악을 하고 입장을 할려고 했는데 개막식이 겹쳐서 조금 더 대기 시간이 생겼다. 그래서 잠시 대기를 하고 입장을 했는데 국내와는 다르게 관중석에 사람들도 많고 음악도 틀어져있고 카메라까지 있었다. 어차피 예선이니깐 긴장 할 필요 없이 자신있게 해왔던 그대로 했어야 했는데 긴장도 되고 투척 감독님으로 오신 부산체고 이상윤 선생님께서 자세를 봐주셨지만 지금까지 배우던 동작과 다르고 그 동작을 받아드려서 실행했어야 했는데 이해는 했는데 그걸 몸으로 실행을 하지 못했던 것 같다. 또 이렇게 세계에 내 또래 애들은 즐기면서 시합을 뛰고 있는데 나는 혼자서 긴장하고 집중을 하지 못해서 시합에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하고 예선 탈락과 600g으로 던진 기록도 내지 못했다. 창던지기 결승을 보면서 그 애들의 베스트 기록을 보고 시합을 하는 걸 지켜보는데 자기들의 베스트 기록을 대부분의 애들이 다 깨고 좋아하고 있는 걸 보면서 나도 저 틈에서 저렇게 즐기고 싶다는 생각과 저 애들은 엄청나게 노력을 했을텐데 나는 그런 노력도 하지 않고서 저렇게 되기만 바랬던 것 같고 아직까지 갈 길이 멀다는 점과 더 노력을 해야하고 내 종목인 창던지기 대해서 더 알아보고 안된다고 포기하지 않고 꼭 좋은 선수 큰 선수가 되기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더 열심히 해서 같이 시합을 뛴 그 애들을 다음에 만나면 꼭 이길 수 있도록 목표를 크게 갖고 국내에서 내 기록도 계속 올려 나가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좋은 경험 쌓은 것 같고 비록 아쉽고 미련이 많이 남는 경기였지만 이런 좋은 기회를 잘 잡아서 다시 한 번 도전을 해보고 싶다.

※ 건의 사항

이런 시합은 경험도 쌓고 좋은 기회지만 그래도 시합이니 잘하면 좋으니깐 현재 배우는 코치님이 함께 가는건 무리니깐 동작에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고 이런 보강운동을 시키고 시합 전에는 어떻게 하는게 이 애한테 좋은지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합니다. (개인적으로^^) 단장님도 매니저님도 함께 가신 감독님도 잘해주시고 잘 챙겨주셔서 감사했습니다!

- 정유선 (여자 포환던지기 / 충북체고)

IAAF 세계청소년육상선수권 대회를 다녀와서

이번 IAAF 세계청소년육상선수권대회 참가한 저는 매우 설레고 재미가 있었습니다.

전국대회가 아닌 세계대회.. 처음 나가본 저에게는 매우 신기하고 배울것이 정말 많았습니다. 국내 대회를 출전하면서 전혀 느끼지 못한 체력적인 문제와 다양하지 못한 기술 및 기본기 그리고 국내 선수들과 국제 선수들의 기록 차이. 세계대회를 뛰러온 선수들의 기술을 보면 정말 와 ~ 소리가 나올 정도로 멋지고 대단했습니다. 선수들이 시합을 뛰는 것을 보면서 배울 것도 많았고 아직 나는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IAAF 세계청소년육상경기대회를 참가한 저는 비록 좋은 성적은 못 거두었지만 배운 것은 많았고 느낀 점도 많아서 정말 좋았습니다.

저는 경기 중에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제 기록도 던지지 못해서 많이 아쉽습니다.

경기를 최고의 컨디션으로 임하지 못한 저의 경험 부족이 많은 아쉬움을 한 번 더 남깁니다.

그리고 다른 선수들의 비해 월등한 체격 조건을 극복하지 못한 저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한 번 더 느끼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의 훈련과정 중 많은 보안점이 필요하겠지만 제가 우선적으로 중점을 두어 훈련할 것은 피니쉬 훈련으로 생각하고, 기본기훈련과 선수들의 중요 포인트를 캐치한 기술훈련을 많이 해야 할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체격적으로 부족한 저는 웨이트 훈련을 통해 좀더 강한 힘을 길러 국제대회에도 최 상위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기 외 나머지는 너무 즐겁고 행복한 경험이었습니다.

시합 마지막 날 열리는 공원에서 즐긴 파티타임. 정말 신기하고도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

경기에 출전했던 모든 선수들이 한 공원에 모여 신나게 춤도 추고 맛있는 저녁 만찬도 즐기고 놀이기구도 타는 신나는 경험.

국내 대회에서도 이런 일이 이뤄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시합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국내대회에서는 볼 수 없는 선수들과의 친분관계, 비록 다른나라에서 왔다하더라도 모두 친구로 생각하는 해외선수들.

말은 통하지 않지만 짧은 영어단어와 몸짓으로 통하는 의사소통.

한국 나이로 고1, 고2 선수들이라 그런지 모두 친하게 대할 수 있었습니다.

국내대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았으면 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국제 대회에서도 1등할 수 있는 선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충북체육고등학교 정유선이었습니다!